

김남훈

법원행시 대비
강의계획서

변호사

민법

기본강의 (기초입문)

- 민법의 기본내용부터 심화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강의
-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까지 정리하는 강의
- 출제예상 판례에 대한 확립된 법리와 유사판례까지 정리하는 강의
-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사실론을 체득할 수 있는 강의
- 채점자인 현직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강의

일 정

2025. 12. 15 (월) ~ 2026. 01. 31(토), 총 40회(가족법 포함)

** 12/25(목), 1/1(목) 휴강

강의시간 14:00 ~ 17:30

교 재

- Essential 민법(26년 제11판, 근간)

2026

수강생

특전

- 실강 수강생에 한하여 교재 및 복습동영상 무료 제공

※ 법원행정고시 공부방법 및 강의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jusdroit@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시 대비

김남훈 변호사 강의계획서

민법 기본강의(기초입문)

강의 진행 방향

I. 법원행정고시의 출제경향 및 일반적인 학습방법

법원행정고시의 출제자 및 채점자는 현직 법관, 서기관, 사무관 등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한 실무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형에서는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의 사례문제와 모의기록에 기초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판례들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최근의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시험문제(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 강의)에서 출제된 판례에 대하여도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정리해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화된 쟁점과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까지 학습해야 합니다.

II. 민법의 구체적 학습방법

2차 시험은 출제자들이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2차 시험에서는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까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등기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법원사무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민법 교과서 수준을 넘는 범위까지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의 중요 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III. 강의진행의 방향

1. 기본개념의 정확한 이해

기본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법학에 있어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쟁점에 대한 통설적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강의의 1차적 목표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도 본 강의를 통하여 합격에 필요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2. 민법 조문과 판례의 정확한 이해

민법 학습의 기준은 항상 민법조문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조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결국 학습과 판례는 민법조문을 어떠한 내용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사례문제의 시작과 끝은 민법조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겠습니다.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강의의 궁극적 목표로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의 결론이 다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수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내용까지 설명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2시험에서 합격을 좌우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항상 이러한 과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쟁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접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내용도 강의할 것입니다.


민법 기본강의(기초입문)

강의 진행 방 향

3. 2차용 키워드의 정리

1차와 2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법원행시의 특성상, 중요한 쟁점을 강의하면서, 이러한 쟁점이 2차 사례형에는 ~~한 식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방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2차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키워드도 암기할 수 있도록 강의하여, 자연스럽게 2차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채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4. Essential 민법(2026년 제11판)의 구성 - 친족상속법까지 포함

민법 조문을 일반적인 교과서 편제에 맞추어 모두 수록하였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부속법도 수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조문과 관련하여 학습해야 하는 내용은 “”로 해당부분에 기재하여, 조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건사실론의 내용을 별도의 교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최신 판례까지 반영하여 모두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출간한 ‘요건사실론’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출간한 ‘요건사실론’의 내용까지 전부 참조하여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학습을 통하여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별도의 교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물건법에서 중요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등기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효율적인 강의수강의 방법

강의진도는 입문강의(1회) → 민법총칙(9회) → 물건법(10회) → 채권총론(8회) → 채권각론(8회) → 친족상속법(4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건법에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의 개념을 학습해야 이해할 수 있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충실한 학습이 되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친족상속법에서 학습하는 후견인 제도를 공부하지 않으면, 민법총칙의 제한능력자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강의에서도 친족상속법을 반드시 학습해야 합니다.

개인별 구체적인 학습방법 및 개인상담은 개강 후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픈카톡채팅방(개강일 공지)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카톡채팅방을 시험의 합격 시까지 합격의 도구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변호사를 믿고 수강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소수만 합격하는 법원행시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강의진도표

별도의 진도표는 없고, 매일 50페이지 정도를 강의할 것입니다. 법조문도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전을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고, 복습 위주로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종강 후 2회독 때에는 교재를 먼저 학습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복습동영상으로 확인학습을 하면 됩니다.